

조 · 일간의 교역품이 조선의 복식문화에 미친 영향(I) -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품을 중심으로 -

이자연¹⁾ · 박춘순²⁾

1) 신라대학교 패션디자인 · 산업학과

2)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The Influence of the Trade Goods Between the Chosun Dynasty and Japan on the Costume Culture of the Chosun Dynasty (I) -Centered on the imported goods from Japan-

Ja-Yeon Lee¹⁾ and Chun-Sun Park²⁾

1) Dept. of Fashion Design & Industry,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2)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Abstract :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nfluence of Caesalpinia sappan which was imported through the exchanges between the Chosun dynasty and Japanese envoys during the early Chosun dynasty. Korea interchanged politically and culturally with Japan since ancient times. Particularly, the good-neighbor foreign policy toward Japan grew into trade relations. The diplomatic mission, under the name of Tongshinsa, was dispatched 12 times in total. Plenty of goods were exchanged through the visiting of Japanese envoys as well as through the activities of Korean envoys. In other words, the Korean-Japanese relations were at first focused on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etiquette and gradually evolved into economic exchanges. Trading goods were various, including food, clothing, etc. Caesalpinia sappan, a red dye, was the most imported goods from Japan, but it was sold at a very high price, which caused luxurious trends in clothing. However, these sumptuous moods of the upper classes were decreased in the 16th century. Some of the reasons are : the difficulties of Japan's trade with the Caesalpinia sappan produc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the transition of the high classes' preference from red clothing into Chinese BaecSa and SaraNeungDan, and the comparative decrease in the demand of Caesalpinia sappan by the changed understanding of Honghwa. Therefore, the early Chosun dynasty's clothing trends were due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osun dynasty and Japan.

Key words : Caesalpinia sappan, Japanese envoys, Korean envoys, Trading goods

1. 서 론

조선에서는 왕조수립 시초부터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외교 정책을 선린외교의 자세로 세워 고려 때부터의 국난이었던 왜구의 단속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수호를 위한 교섭의 길을 터놓고 있었다. 이리하여 일본측에서는 일본국왕의 명의로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를 엄히 다스릴 것을 약속하였으며, 조선은 報聘使를 보내어 이에 대한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외교관계가 확립된 후, 조선과 일본이 친분을 교류하면서 평화적 우호적 관계를 상징하는 명칭인 통신사란 이름으로 일본에 조선사절이 파견된 것은 1428년부터 1529년 임진왜란 전까지 약 5회,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사신의 조선으로의 파견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조(朝) · 일(日) 관계에서 조선통신사를 포함한 조선의 사절과 일본사신간의 정치적 문화적 교류가 빈번하였던 점에 주목하여, 조선전기에 전개되었던 두 나라간의 교역에서의 물품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인 蘇木를 중심으로, 소목수입이 조선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였는지 밝힘으로써 조선과 일본의 복식문화에 관한 일면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내용으로는 우선, 조선시대 전기의 조 · 일 간의 교역의 계기가 되었던 두 나라간의 사신의 파견과 개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일본과의 교역품과 그 특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또한, 수입품 중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소목을 중심으로 거래내역과 거래량에 관하여 알아보고 소목 수입량의 변화추이와 그 원인을 살펴본다. 특히, 소목이 각종 복식용품을 염색하는 염료인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복식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소목수입으로 인한 조선사

회에서의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여 봄으로써 조선사회에서의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여 봄으로써, 조선사회에서의 소목의 위상과 조·일 간의 복식문화의 한 면을 밝힌다.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문헌과 관련 사료 등의 기록을 참고로 한다.

2. 조선전기의 조·일관계와 교역

2.1. 조선전기의 조·일관계와 개항

조선시대 대일관계는 왜구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고, 일본의 제 세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노력도 왜구금압을 위한 것이었다. 즉, 조선은 태조 즉위 직후인, 1392년 11월 승려인 覺鑿을 아시카가장군에게 파견하여 왜구금압을 요청함으로써 왜구금지와 함께 피로인의 송환을 약속 받았으며, 이때부터 일본교섭의 단서가 열리기 시작하였고(김병하, 1969), 규주(九州) 지방을 비롯한 이키(壹岐), 쓰시마(對馬島) 등 조선과 근접한 지역의 중소 영주들이 보낸 사자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태조 연간(1392-1398)에 사자의 명칭을 가지고 왕래한 예를 보아도 무려 28차례나 이를 정도였다. 또한, 왜구침탈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대응을 취하는 한편, 조선통신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장군 세력이나 중소 영주 또는 지방 세력가들과의 외교적인 교섭, 투항자에 대한 식량과 관직수여 등의 귀화 정책은 상당한 실효를 거두어 양국관계에 커다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일본과의 통교도 점차 활발해졌다.

한편, 일본으로부터 막부의 사행, 영주의 사행, 대마도의 사객, 도민, 왜상 등의 주로 장사를 목적으로 한 내왕이 빈번하여 여집에 따라 생겨난 군사적, 경제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포를 한정하여 태종 7년 부산포와 내이포가 최초로 개항하게 되었다. 부산포와 내이포의 개항에 이어 태종 18년에는 새로이 염포와 가배량의 두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4개처가 개항되었다(태종실록, 권35, 18년 3월 임자조). 그러나 왜구의 활동이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 원년(1419)에 대마도 정벌이 단행되었고(세종실록, 권5, 원년 9월 임술조), 이를 계기로 4개의 포는 폐쇄되었다.

대마도 정벌 이후 세종 4년(1422) 9월 대마도주 宗貞盛이 귀순해 옴으로서 완화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세종 5년(1423) 4월에는 부산포와 내이포를 다시 개항하였고(세종실록, 권17, 4년 9월 병인조), 세종 5년 10월에는 부산포와 내이포에 왜객의 持供을 위한 시설까지 준비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세종실록, 권20, 5년 4월 병인조). 세종 8년(1426) 정월에는 대마도로부터 거제도, 전지개간에 대한 요청이 있음에 따라 거제도 개간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자 그 대신 염포를 열어 무역하게 함으로서, 왜인은 도박처인 내이포, 부산포, 염포의 삼포를 통하여 무역하게 하였다(세종실록, 권22, 5년 10월 임신조). 세종 25년에는 신숙주의 참여 하에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게 되었는데, 이것은 왜인들이 무제한으로 요구하는 물자공급을 통제할 목적에서였다. 계해약조를 통하여 歲遣船의 수를 50척으로 제한하고, 매년 조정에서 도주에게 사급하

는 歲賜米豆는 200석으로 하였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特送船을 보낼 것과 도주에게 圖書를 작성하여 주고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마도와 일본 각처의 선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 이 癸亥約條를 바탕으로 한 대일무역은 종종 5년(1510) 삼포의 왜란으로 삼포가 폐쇄될 때까지 삼포는 대일 통교의 중심지였다.

2.2. 대일무역의 전개와 교역

조선은 왜구의 침입에 대한 금구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을 하나의 통일국가로서 인정하고 이들을 회유시키기 위한 회유정책으로서 교린외교에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교린외교는 결국 조일 간의 통상외교로 까지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반면, 조선정부는 적극적인 정책도 병행하면서 강경한 대책으로 대응하여 왜구의 근거지를 없애고자 토벌정책을 강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옷, 양식, 물자 등을 후사하고(태종실록, 권5, 14년 7월 임오조), 귀순책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태종 5년(1396)에는 왜선 60척이 투항하기도 하였다(태조실록, 권10, 5년 12월 을사조). 그 결과 投化倭人の 수는 격증되었고 使送倭人이나 홍리왜인이 들어와서 우리 정부의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일본인의 도래나 사송선의 파견을 규제하기 위하여 授圖書, 書契, 文引, 通信符, 告身, 歲遣船 定約 등의 제 제도를 완비하여 이들의 도래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였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대일 간의 무역을 보면, 당시 일본국왕은 명의 책봉을 받고 있으므로 조선의 왕과 대등한 관계에서 무역이 행하여졌으나, 일본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諸巨酋使나 諸酋使는 일본국왕과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무역이 행하여졌다.

즉 대일 무역의 성격은 일본 國王使와의 교역과 일본의 여러 호족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교역의 형태를 취한 다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역은 국왕사 이하 지역의 제후들이 조선의 왕에게 물품을 헌상하면 조선이 답례로 회사품을 보내는 형태였다. 이러한 진헌과 회사의 방법은 초기에는 조선이 무역보다는 전통적인 교린의 외교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특히 조선은 왜구를 방지하기 위한 회유정책의 일환으로 일

Table 1. 일본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교역품(小野晃嗣, 1941)

영료·매염재	蘇木, 黑木, 深黃, 緋梅木, 明礬, 土黃, 朱紅, 唐朱
향료	丁香, 沈香, 香, 肉桂, 香木
약재	胡椒, 良薑, 訶子, 川芎, 桂心, 檳, 白檀, 白礬, 犀角, 剪黃, 芭豆, 麒麟香, 麒麟血, 蘇油, 肉豆, 蘇合油, 樟腦, 甘草, 舊香, 丁香皮, 龍腦
도자	染壺, 磁盆
직물	金襴
금속	鉛, 白蠟, 白鉛, 硫黃, 石硫黃, 銀, 銅, 赤銅, 白銅, 環刀, 劔, 大刀
기타	藤, 紫檀, 象牙, 砂糖, 素麵, 葛粉, 蠟炬, 溫州, 扇, 具箱, 手籠, 食籠, 手箱, 朱盆

Table 2.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小野晃嗣, 1941)

주식물 · 부식물	米, 糙米, 豆(黃豆), 燒酒, 淸酒, 乾柿子, 蒜, 黃栗, 淸蜜, 蜜果
약재류	人參, 藥, 桂, 五味子, 大黃, 黃耆, 黃茶
직물류 · 복식품	麻布, 黑麻布, 黑細麻布, 苧布, 白苧布, 白細苧布, 黑細苧布, 紅段子, 梢, 綿紬, 白細綿紬, 白紬子, 正布, 綿布, 白細綿布, 儒衣, 滿花方席, 氈冠, 靴, 靴套, 滿花寢席, 笠, 蘭草方席, 千代熊處諸緣具靴子, 大紅羅袈裟, 草綠羅粧飾, 紫羅掛子鴉青羅 粧飾, 藍羅長衫, 紫斜皮鞋鞋, 白綿布幕, 陝地衣, 黑斜皮鞋, 竹帽子, 紅綿子
모피류	虎皮, 豹皮
서적류	大藏經, 大般若經, 仁王護國般若陀羅密經, 阿彌陀經, 釋迦寶, 화엄경, 화엄경목판, 불경목판
기타	공예품류, 동물, 금속

본과의 무역에 응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일무역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朝聘을 목적으로 내왕하는 사신들보다 교역에 목적을 두고 내왕하는 사신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본격적인 무역이 전개되었고(신우정, 2002), 일본과 조선의 공적무역관계는 15세기 말 경 국내외적 조건이 갖추어지면서(이경식, 1987)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조선전기의 조·일 관계에서, 양국사신들에 의한 교역품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교역물자는 Table 1과 같으며,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교역물자는 Table 2와 같다.

위의 조·일 간의 교역품을 보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물품은 주로 염료, 향료를 비롯하여 약재류, 금속류 등 주로 원료에 해당하는 물품이 대부분이며, 이들 물품 중 염료와 호초, 약재류와 같은 수입품은 일반 서민의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왕실과 귀족들의 수용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은 주로 직물류를 비롯하여 모피, 대장경, 서적, 공예품과 같은 문화적인 생산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3. 소목의 수입과 조선사회에의 영향

3.1. 소목의 교역과 거래량

이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일 두 나라간의 교역품은 약재 및 식품류, 복식류 등 다양한 품목에 이르고 있으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소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소목은 당시 일본이 南蠻이라 칭했던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과의 활발한 교역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선은 일본을 통하여 구하였다. 소목은 동인도산 수목명 브라질목의 일종으로, 원산지는 동인도, 말레이 반도이며, 아시아의 온대지방에 주로 생육하고 있다. 소목이라는 명칭은 蘇方木의 약칭이며, 조선 시대에는 丹木이라고도 하였고, 지방에 따라 蘇芳 또는 紅木, 赤木 등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어졌으며, 『본초강목』에 의하면 그 생산지가 소방국(소방)이어서 소목이라고 생략하여 불렀다고도

Table 3. 소목교역의 횟수와 거래량(1420-1427)(세종실록)

연도	진상회수	진상량(근)	일회평균진상량(근)
세종 2년 (1420년)	3	1,200	400.0
세종 3년 (1421년)	7	3,800	542.9
세종 4년 (1422년)	1	300	300.0
세종 5년 (1423년)	51	56,070	1,099.4
세종 6년 (1424년)	7	5,050	721.4
세종 7년 (1425년)	2	1,100	550.5
세종 8년 (1426년)	3	1,000	333.3
세종 9년 (1427년)	4	1,500	375.0
합 계	78	70,020	869.4
연 평균	9.7	8,752	

한다(조경래, 2000). 소목의 용도는 약재로도 쓰였으나, 염료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염료로 사용된 소목은 황갈색이 강하고 광택이 있으며, 염색이 잘되고 화려한 적색을 얻을 수 있다. 『임원경제지』에는 소목의 목홍색이 명반에 의하여 홍색으로 발색된다(임원경제지)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소목의 교역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蘇芳典이라는 염색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고려시대 정종 7년(1041) 11월에 大蘇木을 가져왔다는 기록과 창왕대(1389)에는 琉球國의 사신으로부터 소목 600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고려사, 권137). 조선시대 전기에도 유구국을 비롯하여 남방의 여러 나라와도 교역이 있어, 태조 2년(1393)에는 暹羅斛國(지금의 태국)의 사신이 소목 1000근을 가지고 왔다(태조실록, 권3, 2년 6월 경인조는 기록도 보인다).

조선시대 대일 간의 소목무역은 태종 조에 이르러 일본으로부터 소목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태종 6년(1406) 12월에 丹州守 肥州守가 사신을 파견하여 소목 등을 진헌한 사실이 있었고 동 11년 2월에는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품 중에 소목염료가 사용된 것을 보면(태종실록, 권21, 11년 2월 임진조), 당시의 소목 수입량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소목의 교역은 세종 조에 이르러 활발히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는데, Table 3의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 원년부터 9년까지의 일본으로부터의 소목 거래량을 보면, 세종 2년부터 소목의 진상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세종 5년에는 56,070근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양은 연평균 8,757근에 이를 정도의 막대한 양이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소목수입이 가장 많았던 세종 5년에는 조일 간의 무역이 가장 원만히 수행되었던 시기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소목의 수입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세종 10년(1428)이후에도 소목거래는 활발하게 행하여졌는데, 이 시기에는 일본에 있어서도 소목이 풍부했던 시기로, 그 예로서 遣明船에는 소목 106,000근이 적재되어 있었다고 한다(김병하, 1969).

또한 세종 30년(1448) 6월과 동 31년 2월에 도래한 일본사신의 진상물 중에 각각 소목 1,000근이 들어 있었으며, 세조 원

년(1455) 9월의 호조와 예조의 탐에 의하면, 일본사신이 가지고 온 소목의 가격이 正布 약 만여 필이 된다고 한다(세조실록, 권 2, 원년 9월 무인조). 세조 원년에 있어서의 使送倭人の 수는 6,116명이나 되었고(세조실록, 권2, 원년 12월 기유조), 세조 3년에 거래된 소목이 11,000근에 달하였다고 한다(세조실록, 권 8, 3년 6월 임인조). 또, 성종 초기의 일본사신일행이 진현한 소목이 400태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더라도(성종실록, 권19, 3년 6월 정해조), 세종 대 이래 일본사신의 도래는 증가되었고 소목의 수입량도 계속하여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에는 많은 양의 소목이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고가여서, 세종 5년(1423)에 소목 10근에 대하여 정포 77척의 가격이었으며, 성종 20년(1489) 7월에는 정포 95.37척의 가격이었다고 한다. 소목의 수입량은 월등하게 늘어났으나, 가격면에 있어서는 더욱 상승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소목의 수요가 늘어났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종 조까지 성행하였던 소목 거래는 15세기 말에 이르러 일변하여, 그 수요가 점차 감소되기 시작하였는데, 연산군 6월의 기록에 의하면, 선왕 조 때에는 왜인이 다량의 소목을 진현하였으므로 과잉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중단되어 가지고 오지 않아 그 사용처는 극히 많은데, 京外所在量은 극히 적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연산군일기, 권33, 5년 6월 병진조). 즉, 연산군 5년 3월과 4월에 일본사신의 도래횟수가 11번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였으나(연산군일기, 권33, 5년 3월 4月), 여러 가지 진현물 중, 소목은 한 차례의 거래도 없었다. 또한, 연산군 8년(1502) 정월의 기록에 의하면, 1년 경비 이외의 濟用監에서 別禮用度 소목만 하여도 3,250근이었으나, 익년 2월에는 경상도가 진상한 소목은 천근에 지나지 않았다(연산군일기, 권48, 9年 2월 丙辰條)고 한다.

또한 중종 대의 소목거래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종 5년(1510)의 삼포왜란에 의하여 소목의 수입로가 완전히 두절되자 최후 수단으로서 종묘의 紅梢는 명으로부터 구입하고 儀仗袂와 雜裏袂는 鵝靑染色으로 대응한다는 조치를三公이 의결하게 되었다(중종실록, 권12, 5년 10월 을유조). 儀仗袂와 雜裏袂를 鵝靑染色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전통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적색염료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임

신약조이 체결된 중종 7년(1512) 이후, 소목무역은 재개되었으나, 통제는 일층 강화되고 소목의 수입량은 15세기에 비하여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중종 대 중기부터는 점차 소목수입이 증가되기 시작하여, 중종 39년(1544) 정월 일본사신이 소목 8천근의 加賀를 청원한 기록이 있으며(중종실록, 권101, 39년 정월 사미조), 명종 원년(1546) 10월에는 일본국사 安心東堂이 가지고 온 소목은 3천근이었다(명종실록, 권4, 원년 10월 병술조)고 기록되어 있다. 명종 조에 이르러 소목의 진상은 다소 증가하여,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조 13년(1580)부터 동 19년까지는 평균 1, 2천근의 소목이 매년 진상되었으며 최고가 선조 17년(1584)의 2,315근이었다(김병하, 1969).

이렇듯 다량의 소목을 가져와 교역하는 근원은 그것에 대한 국내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동안 소목은 다른 품목에 비하여는 거래량이 가장 많으며(김병하, 1969), 지속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양에 있어서는 시기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어, 15세기 초, 중기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5세기 말경부터 16세기 초기까지는 전대보다는 다소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6세기 중기부터 다시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다시 16세기 말엽부터는 점차 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목의 거래량에 관한 변화의 원인은, 물론 조선과 일본 양국의 사회적 문화적인 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2. 소목수입으로 인한 조선사회에의 영향

조선사회의 적색선호의식과 소목수입 : 조선은 주자학을 국시로 채택하여 건국 초부터 유교적인 검약의 실천을 강조하였지만, 대내외 경제의 변화와 함께 지배층을 시작으로 점차 사치풍조가 일어났다. 사치풍조는 조·일무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하였는데, 염료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의복에 있어서 사치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태종실록, 권27, 14년 5월 신사). 특히, 세종 조에 이르러서는 사치가 일층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세종실록』에 기록된 시간원의 상소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배척함은 국가의 오랜 좋은 규칙이니 사치의 습관은 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芝草와 紅花는 비록 본국의 생산물이나 지극히 귀하고 소목의 경우는 모두를 왜객으로부터 구입하여 국용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위로는 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천예에 까지 紫色으로 사치하기를 좋아해 紫色을 한 필 염색하는데 또 한 필의 가격이 소용됩니다. 그런데 표리까지도 모두 紅染을 사용하니 蘇木과 紅染의 가격이 역시 천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紫染은 진상 衣대나 靛내소용 이외에는 일체 금지시키고 衣裏를 紅染하는 것은 문무 각품과 사대부 자제이외의 各司吏典이나 外方鄕吏 工商賤隸들의 착용은 연한을 정해 금지하여 영구히 사치와 화려함을 없애고 등위를 변별하소서. ---왜상들이 소목을 운반해 오는 폐해가 매우

Table 4. 소목교역 횟수와 거래량(1580-1586)(선조실록)

연도	진상회수	진상량(근)	일회평균진상량(근)
선조 13년 (1580년)	78	955	12.2
선조 14년 (1581년)	87	1,690	10.4
선조 15년 (1582년)	79	2,000	25.3
선조 16년 (1583년)	83	2,130	25.7
선조 17년 (1584년)	79	2,315	29.3
선조 18년 (1585년)	81	1,710	21.1
선조 19년 (1586년)	74	1,570	21.3
합 계	561	12,370	
연 평균	80.1	1,767	

크지만, 왜인의 무역을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국에서 소목으로 염색하는 것을 금지하면 왜인들이 와서 교역하는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세종실록, 권35, 9년 2월 정축조).

이와 같이 紅染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소목의 수요는 늘어나, 많은 양의 소목이 조선으로 유입되어 들어왔음을 알 수 있으며, 다량의 소목을 가져와 교역하는 근원은 소목에 대한 국내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성종 조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극심하였다(세종실록, 권13, 2년 12월 임신조)고 한다.

한편 조선시대에 있어서 특히 소목소비가 많았던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색채 중에서도 적색계열의 색채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조선시대의 적색선호의 원인을 검토해 보면, 당시의 사상체계와 복식관과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대에는 하늘과 땅을 비롯한 천지만물은 모두 음양의 이원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陰陽二元論의 사고와, 물리적 우주의 모든 존재를 다섯으로 구성하여 보려는 五行說의 사고 아래, 색채까지도 다섯으로 규정짓고, 우주의 모든 개념을 적, 청, 황, 흑, 백과 연결시켜 행동하였다. 이러한 색에 대한 관념 특히, 적색계열에 대한 관념은 우리 생활 속에서 주술적인 의미와 약물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신앙관으로 고정화되어 우리의 의식구조와 생활을 지배하는 색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적색이란 「붉다」는 개념에 포함되는 赤, 紅, 朱色의 총칭으로, 적색계열에는 多紅, 水紅, 銀紅, 丁紅, 番紅, 木紅, 絨紅, 茶紅, 土紅, 緋紅, 綠紅, 粉紅, 大紅, 眞紅, 緋, 朱紅, 朱土, 絳, 茜草色, 臙脂色 등이 있다. 염색한 적색계통의 색은 염색에 사용한 염재, 염색회수, 염색방법 등에 따라 색명이 다르게 명명되는데, 한 번 염색하면 緋, 紅, 두 번 염색하면 禎 또는 茜赤, 세 번하면 纁 또는 絳이라 하였으며, 네 번하면 朱가 된다. 또한, 李漢의 『星湖僂設類選』 5卷에는 紅藍으로 물들인 것을 眞紅이라 하였고(성호사설류선), 『常變通考』에는 紅花에 의하여 염색된 연지색을 大紅이라 하며, 염색한 농담에 따라 각각 연홍, 비홍, 은홍, 수홍이라 하였다(상섭통고).

이와 같이 적색의 명칭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색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적색을 만들 수 있는 염료로 사용되었던 것에는 紅花가 있었다. 홍화염색은 大紅이라 하여 면포 염색에는 적합하였으나, 그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아 한 벌의 의복을 염색하는데 드는 홍화를 얻기 위하여 경작되는 토지의 면적은 4인 가족 1개월 분의 식량을 산출할 수 있는 토지면적과 같은 정도의 고가였다(성호사설, 권5, 상, 인사편).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된 소목은 기존의 홍화 부족을 보완하거나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염료로 각광을 받았으며, 당시 소목의 인기는 홍화의 염색을 雜染이라 칭하고 소목에 의한 木紅을 上色으로 간주할 정도로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목이 조선시대 전기, 교역품 중 가장 그 수입량이 많았던 사실을 통하여서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소목소비와 조선사회의 복식문화 : 수입된 소목의 국내 소비를 보면, 소비층은 주로 왕실을 비롯한 양반 사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잉여품은 일반상인에게 불하하거나, 또는 사대부나 시녀들의 하사품으로 배분되었다(김병하, 1969). 배분된 소목은 주로 염색이 잘되고 화려한 적색계열의 색을 얻을 수 있는 염료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적색에 대한 사치풍조로 인해 귀족층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자색을 좋아하여 한 필을 염색하는 비용이 한 필의 가격에 상당할 정도로 염색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걸감뿐 아니라 안감까지도 모두 紅染하는 실정이었다(세종실록, 권35, 9년 2월 정축조) 물가가 등귀할 정도였다.

왕실과 및 일반관료들에 있어서의 적색 사용처를 보면, 관복 제작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태종 2년에 명나라 建文皇帝로부터 纁繪裳, 纁繪蔽膝 등의 면복과 복식품의 賜與에 의하여 왕실에서 많은 홍색계통의 복식품을 사용하게 되었으며(연려실기술), 세종 10년에는 세자의 관복을 명나라에 청하여 받아 왕세자가 七葉遠遊冠에 絳紗袍를 갖추고 纁裳, 紅緞襪, 紅緞絳紗袍 등을 착용하게 되는 등, 왕과 왕세자는 絳紗袍, 紅裳, 赤羅衣, 赤羅裳 등 적색 의복을 많이 착용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의복의 염색을 위하여 소목이 다량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조복, 공복 및 종묘용의 紅梢, 儀仗袂, 雜裏袂 등을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적색이 사용되었으며(세종실록, 권35, 9년 2월 정축조), 국혼 시에나 공주나 대군, 관리 자제의 혼례용 복식과 각종 예복의 안감으로도 적색이 많이 쓰였다. 이와 같이 적색의복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그 염료로 소목이 다량 사용되었을 것이며, 왕실에 紅染匠을 두어 염색을 하게 한 것으로 보아서도 그 사용처를 짐작할 수 있다.

적색에 대한 선호관념은 위로는 卿大夫로부터 아래로는 賤隸에 이르기까지 적색을 좋아하여, 소목의 필요성을 상소한 기록(세종실록, 권217, 19년 6월 정미조)도 보이는 반면에, 진상과 궁궐에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紅染과 紫染을 금지하고 또 양반 사대부 이외의各司 吏典, 外方鄉吏, 工商賤隸가 표리에 紅染하는 것도 금지하자고 하는 적색금지령(세종실록, 권35, 9년 2월 정축조)도 있어 적색선호는 극에 달하였을 것(태종실록, 권27, 14년 5월 신사조)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귀한 수입품인 소목에 대한 귀족층의 선호도 때문에 홍화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소목의 수요는 15세기까지는 계속 증가추세에 놓여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는 많은 양의 소목이 왜상들에 의해 계속 유입되었다(이정수, 1998).

이처럼 왜상들이 다량의 소목을 가져와 무역하는 근원은 그것에 대한 국내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 말 이후 면포의 생산량이 점차 늘면서 면포의 희소성이 극감하는 반면, 대명무역이 확대되면서 중국산 白絲의 수입이 증대함에 따라 사람들은 고급인 紗羅綾緞을 애용하게 됨에 따라, 사치의 품목도 적색의복에 대한 선호에서 중국산 사가능단의 애호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김병하, 1969).

즉, 15세기말 이후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소목에 대한 상류

계급의 호기심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소목의 생산지인 동남아시아 각 국과 일본과의 원활하지 못한 교역으로 인하여 조선으로의 소목유입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선사회에서의 사치관념은 중국산 백사나 사라능단에 향하게 되고 또 홍화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개선되어서 소목에 대한 수요는 이전보다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대부가 표리에 紅染하는 풍습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었고, 궐내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 및 복식품, 조복, 공복 등의 염색용으로 일정량의 소목은 매년 필요로 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었으며, Table 4에서와 같이 16세기 말엽까지 여전히 소목은 일본으로부터의 진상품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기 조선통신사를 포함한 조선의 사절과 일본사신과의 교류 중 일본사신이 가져온 蘇木수입으로 인하여 파생된 조선사회의 영향에 관하여 연구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은 고대부터 정치적 혹은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으며, 특히 조선시대의 일본과의 교린외교는 통상외교로 발전하여 조선의 사절과 일본사신의 내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이 유입되기도 하고 일본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즉, 조·일간의 교역은 처음에는 정치 의례적인 목적이 중심이었다가, 점차 경제적인 교류로 확대되었다. 양국사신들에 의한 교역품은 식품류, 복식류, 기용류 등 다양한 품목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물품은 주로 원료에 해당하는 물품인 반면,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물품은 주로 문화적인 생산물이 대부분이었다. 조선시대 15세기 중엽까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가장 많이 수입이 된 물품은 적색염료인 소목이었다. 당시 소목의 거래는 매우 활발하여 막대한 양의 소목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매우 고가였다. 소목의 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그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수요가 급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조·일무역으로 소목의 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인 현상은, 의복에 사치의 경향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보면, 적색은 고대부터 우리 민족의 신앙관으로 고정화되어 우리의 의식구조와 생활을 지배하는 색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여기에 일본의 동남아시아 각 국과의 활발한 무역과, 그로 인한 일본으로부터의 막대한 양의 소목유입이 상호결부되어 적색에 대한 사치의 경향을 더욱 더 자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6세기에 이르러서도 궐내소용이나 조복, 공복 등의 홍색용으로 일정량의 소목은 매년 필요하였고, 또한 상류계급의 표리에 홍염하는 풍습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 조선전기 조선사회에서의 수입품으로서의 소목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류계급의 적색에 대한 사치경향은 다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일본과 소목 생산국인 동남아시아 각 국과의 교역이 원만하지 못하였다는 점, 지배계급의 적색의복의 선호에서 중국산 백사 및 사라능단에 향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홍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 김병하 (1969) “李朝前期對日貿易研究”. 선일인쇄사, 서울, p.1, 122,125.
- 신우정 (2002) 조선전기 대일 후추무역에 관하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식 (1987) 16세기 시장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57, 43-92.
- 이정수 (1998) 15,16세기의 대일무역과 경제변동. *부산사학*, 22, 37.
- 조경래 (2000) “천연염료와 염색”. 형설출판사, 서울, p.146.
- 小野晃嗣 (1941) “日本産業發達史の研究”. 至文堂, 東京, pp.293-294.
- 經國大典.
- 高麗史.
- 常變通考.
- 星湖僊說.
- 朝鮮王朝實錄.
- 林園經濟志.
- 練藜室記述.

(2003년 4월 28일 접수)